



외교부

#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1-588
배포일시	2021.8.17.(화)	담당부서	동북아시아국
담당자	최용준 동북아국 심의관 (02-2100-8581)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협력사업 시범 가동(8.17)**  
**- 코로나19 장기화下 역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지원 체제 구축 -**  
**▪ 한·몽간 시범 가동을 첫걸음으로 하여 협력체 참여국간 점진적 확대 추진**

□ 외교부는 8.17.(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에서 추진 중인 실질 협력사업 중 하나인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신속 항원 진단키트(30만불 규모)를 지원 하였다.

○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시 긴급 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협력체 틀 내에서 우리측 제안에 따라 참여국간 협의 중인 협력 사업이다.

※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개요 및 추진 경과

-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이슈 관련 역내 국가간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협력 구상
- 작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이후, 작년 말 한·미·중·일·러·몽 외교보건 당국 및 민간 전문가간 1.5 트랙 형식으로 출범(20.12.29)
- 이후 2차(21.3.30) 및 3차(21.5.27) 외교·보건 당국간 트랙1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협력체 추진 동력 강화 및 협력 방향 구체화 / 실질 협력사업 가동 및 이행세척 채택 추진 중

※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 협력체 참여국들이 일정량의 의료방역 물품을 사전에 약정·공유하고, 역내 보건안보 위기 상황下 일국이 요청시, 해당물품을 약정한 국가가 요청국과의 양자 협의를 거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신속 공급하는 제도

- 이와 관련, 주몽골한국대사관과 몽골 정부는 8.17.(화) 오전 몽골 보건부에서 물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 동 전달식에 참석한 이여홍 주몽골대사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下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역내 국가간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금번 지원을 통한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시범 가동이 동 협력체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대해, 앵흐볼드 몽골 보건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힘든 시기에 협력체를 통해 역내 초국경 보건안보 협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한국측 노력을 평가하고, 금번 지원이 몽골 정부의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사의를 표하였다.
- 외교부는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이외에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국간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신속통로 절차 표준화 등 협력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통해 협력체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전달식 사진. 끝.